

<2018년 4월 29일 주일말씀>

하나님과 주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깨달아라

본 문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

전도서 3장 1-8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 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 매일 하나님과 주는 ‘목적’ 을 두고 행하신다.

2. 매일 행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고로 하나님과 주는 매일 ‘그날 해당되는 일’을 행하신다.
3.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은 볼 수 있다. 고로 하나님께서 매일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낸 자’를 통해 알 수 있다.
4. <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고로 <그와 함께하는 자> 역시 그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5. <보낸 자>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행하시는데, 반드시 ‘때’를 따라 행하신다.
6. <하나님의 때>가 되니, 냉랭하던 남북한의 상황이 급변하여 정상 회담을 하지 않았느냐. <보낸 자>가 시대 십자가를 져 주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0일’ 만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행하셨다.
7.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먼저 할 일’을 하시고, ‘때’를 따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일들도 ‘정한 때’에 행하신다.
8. <하나님>은 ‘섭리사 안’에서도, ‘섭리사 밖’에서도 행하신

다. <섭리사 안>에서는 ‘영적’으로 행하시고, <섭리사 밖>에서는 ‘육적’으로 행하신다.

9. <영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새 시대를 좇는 자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이고, <육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이다.

10. 사람들이 시대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행하신다.

11. 하나님은 <새 시대를 알고 좇는 자들>을 중심해서 행하시고, 이어서 동일하게 <새 시대를 모르는 자들>도 같이 행하게 하신다.

12. <새 시대를 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를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삼위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며 주와 같이 행한다. 고로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13. 만일 <새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몰라도, <보낸 자>는 안다. 고로 <주>는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증거하여 알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준다.

14. <남북한 정상회담>도 사람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15. <주>는 이미 ‘하나님은 때를 맞춰 행하시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이를 증거해 왔다.
16.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세계>에서나, <안 믿는 자들의 세계>에서나 ‘시대 보낸 자’를 중심으로 ‘때’를 맞춰 행하신다.
17. 하나님은 항상 ‘한 때 두 때 반 때’를 따라 행하시고, 혹은 ‘21일, 40일, 70일’씩 정해 놓고 행하신다.
18. <하나님의 창조목적, 휴거 역사>도 ‘때’를 따라 ‘보낸 자’가 땅에 온 지 70년 만에 행하셨다. 그때는 ‘2015년 3월 16일’이었다.
19. 항상 하나님은 ‘보낸 자의 때’를 맞춰 행하신다.
20. 하나님은 <매일 행할 것>을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신다.
21. 마치 <왕>이 ‘자신과 결혼한 자’를 통해 매일 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중심으로 매일 할 일을 행하신다.
22. 오늘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시대 할 일’을 행하고 계신다.

23. 하나님은 매일 보낸 자와 함께 ‘그 날에 해당되는 일’을 함께 행하시면서 ‘그날 정하신 목적’을 행하고 끝내신다. 이에 따라 <민족>과 <세계>도 ‘때’를 맞춰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24. <주>가 행하면, ‘세상’도 그를 따라 행한다. -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라,
25. <매일>이 중요하다.
26.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행하시는 매일이 중요하다.
27. <이때>가 중요하다. 고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하시는 일’을 빼가지 말고, <주>를 중심으로 같이 행해야 된다.
28. <그날>이 가면, 못 하고 끝난다.
29. 제대로 못 했어도 ‘그날’ 주와 같이 행했으면, 후에 반드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0. <매일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못 하는 자>는 ‘작게’ 이룬다.
31. 매일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와 ‘지식’과 ‘질서’로 행하여라.

32. 하나님은 지금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며,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과 ‘안 믿는 자들’ 모두를 향해 평화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33. 이때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은 부활되어 행하게 된다. 고로 ‘들어가도 복’ 을 받고, ‘나와도 복’ 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 을 받으며 살게 된다.
3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을 이뤘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줄 모른다.
35.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 요,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창조목적, 사랑 휴거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 다.
36.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하시는 일들’ 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행해야 됩니다. - 이런 자가 ‘부활되어 산 자’ 다.
37. <산 자>가 주와 함께 매일 ‘부활의 역사’ 를 행한다.
38. <산 자>가 주와 함께 매일 ‘새로운 역사’ 를 행한다.
39. <산 자>가 주와 함께 매일 ‘기쁨의 일들’ 을 행한다.

40.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부활’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다. 이를 깨달아라. 깨닫고 하나님과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